

여성불자 수행욕구 높다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의식조사' 설문결과

여성불자들은 대부분 30대에 이르러 불교에 입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정진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은 7월 29일 지난 해 말 실시한 '여성불자 의식조사' 설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창립 3주년을 맞아 여성불자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강원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여성불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30대 여성불자 가운데 수행경력이 5년 이하 경우는 총 6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40대에서도 수행경력 5년 이하의 비율이 총 36.2%, 10년 이하의 비율이 총 68.8%로 여성불자는 대부분 30대에 이르러 불교에 입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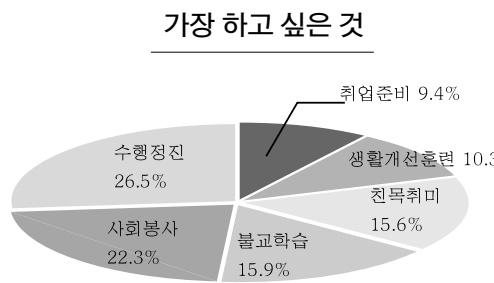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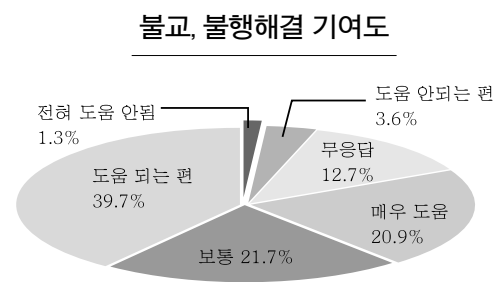
이와 함께 여성불자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사·육아문제 등이 사회생활에 불리하기 때문(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대에 여성불자들의 입문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종단이나 사찰 차원의 어린이 보육시설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여성불자들은 사회봉사(22.3%)나 교리학습(15.9%)보다 수행정진(26.5%)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

다. 사찰(종단)측에 대한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도 공익적 사회참여(22.5%)나 조직적 신도관리(20.5%)에 앞서 전문적인 수행교육 시행(29.1%)을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행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불자들의 높아진 수행욕구와 여성을 위한 수행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성 불자들의 현실의식에 대한 결과도 발표했다. 여성 불교의 발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를 묻는 문항에서 '여성 자신의 노력(41.6%)'이 가정의 협조(24.5%)나 불교계의 지지(23.1%)보다 중요한 것으로 대담함으로써 성역할과 관련한 여성불자들의 보수적인 견해에 있어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남녀 수행활동의 불균형 문제에 있어 '여성 개인의 노력부족(21.4%)'을 큰 원인으로 꼽는 이들이 많았고, 50대 이후에서는 선천적인 능력차이라고 판단하는 이들의 비율도 높았다. 특히 성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여성불자들이에게서 받은 차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여성 스스로가 극복하는 것 또한 중요과제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불자들은 불교신앙의 일상생활 기여도를 묻는 문항에 가족간의 화목(25.9%)을 심심



의 건강(30.6%)과 함께 중요 이유로 선택했다. 또한 한국 여성 일반에 비해 행복감이 높은(44.9%)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의 요인을 해결하는데 불교가 도움이 된다는(69.4%) 인식이 절대적이었다. 여성불자들은 대사회적인 실천에 앞서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우선적으로 기원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작은 실천'은 정신적 안정과 생활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은 "여성불자 테두리 안에서도 연령대별로 욕구와 특징이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설문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일반 사찰의 교육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 상대 108인 손해배상 제기

불교단체들이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서울 불현' 발언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산반야회 등 7개 불교단체는 이명박 시장의 '서울 불현' 발언이 알려진 7월초부터 108명의 소송인단을 모집, 1인당 10만씩 108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7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은 이에 앞서 서울 안국동에서 열린 108인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소송인단은 이 땅에서 보편타당한 대중의 가치와 자신의 종교 이외의 이득 종교나 종교를 갖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공직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뇌 과학으로 마음 작용 살펴요"

신희섭 박사, '뇌와 마음' 강연

"뇌 과학의 발달로 뇌 기능의 변화를 관찰·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의 작용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27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는 '하얀기 백일법문 재개강' 다섯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희섭 박사(한국과학기술원 학습·기억 연구부장)는 이같이 밝히며, '뇌 과학의 입장에서 본 마음의 연구'라는 주제로 뇌 과학의 발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신 박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뇌를 연구하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신 박사는 동물과 사람의 유전자와 뇌의 구조·기능 등을 실험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동물은 실험체로 뇌 신경 세포 기능이 변화해 줄 경우 뇌 신경회로의 작용이 변화해 뇌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즉, 논으로 인식할 수 없고, 단지 그 작용이나 결과로서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나 행동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

었던 '마음'이라는 실체가 뇌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신경회로 작동 등의 연구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신 박사는 "뇌 과학이란 단순한 인간의 뇌를 연구해 유전자의 법칙을 알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유 등을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근후 명예교수(이화여대 의과대)는 서양 정신심리학의 연구 '무의식론'과 동양 불교의 '유식론'을 비교·설명하며 "무의식이나 유식론의 아뢰야식은 이른바 출발점과 대상, 접근법 등이 다르긴 해도, 결론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는 통찰된 호흡에 의해 재구성되는 인격이나 깨달음으로 성별하는 과정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뇌 과학분야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마음의 실체'를 목표로 심리학자 연구분야 등과 상호보완하며 의식과 무의식을 뇌영상화기법으로 접근하는 단계에 온 만큼, 향후 인간의 마음을 뇌 과학적 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경 기자

英 치료목적 선택출산 허용

"배아 선택 불살생계 범하는것" 반대도

영국의 의료 감독기구인 인간수정태생국(이하 HFEA)이 최근 치료 목적의 '맞춤 아기(designer baby)' 출산을 위한 착상전유전자 진단법(이하 PGD)의 사용을 공식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맞춤 아기를 시험관에서 수정된 여러 배아수정란의 유전 조직을 검사해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의 유전형질과 일치하는 배아만을 선택, 자궁에 착상시켜 태어난 아기를 뜻한다. 여기서 배아 유전 조직 검사

에 사용되는 방법은 PGD다.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PGD를 배아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만 허용했으나 이번 HFEA의 조치로 PGD를 형제자매의 난치병 치료 목적의 배아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게 돼 맞춤 아기 탄생이 가능해졌다.

최초의 맞춤 아기는 지난 2000년 판코니 빈혈을 앓는 딸 물리를 위해 미국인 부부가 낳은 아들 아담이다. 아담은 10개의 배아 가운데 선택돼 건강하게 태어났다. 물리는

아담의 맞춤 혈액을 이식받아 치료될 수 있었다. 이런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맞춤 아기가 논란이 되는 까닭은 선택되지 못한 배아는 도태되기 때문이다. 배아도 인간이라고 본다면 살인행위가 된다.

이와 관련 김용정 동국대 명예교수는 "일체중생은 불성을 갖고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며 "배아도 또한 생명으로, 불성을 갖고 있으므로 배아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불성을 해하는 것이며 불살생계를 범하는 것이다"고 맞춤 아기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또 김성철 동국대 교수도 "맞춤 아기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가 당장의 근심은 덜 수

있지만, 인간이 인과응보의 원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주어진 것 이상의 복을 누리려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해 맞춤 아기가 지금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번 영국의 허용 조치는 PGD진단법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한 많은 나라들의 법 제정을 부추길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황우석 서울대 교수는 "선택적 출산은 유전자 조작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맞춤 아기와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선택되지 않은 배아는 도태된다는 점에서 살생으로 생각할 만한 요소가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금지·허용을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캠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원택)가 '제7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 연합캠프'를 8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충남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다.

'푸른 마음 밝은 꿈을 위한 캠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전국 파라미타 청

소년회원 1,300여명이 참석, 청소년들의 신심고취와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과 수련활동 등으로 꾸며진다.

캠프는 신행활동과 과정활동 등 분단별 과정활동과 콘스님 초청법회, 청소년 백일장, 전국청소년 음악 페스티벌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02)723-6165

김은경 기자

대불련 여름대회 부산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강지혜)가 '2004 여름대회'를 8월 5일부터 8일까지 부산 한지골수련관과 내원정사 등지에서 개최한다.

대학생 불자들의 정진과 성찰의 장인 여름대회는 한승희 지도위원장의 '색깔있는

대불련'이라는 주제 강연과 모듬별 토론, 대불련 서원과 정진의 밤, 수계식, '2004 Uni-Buddha Festival'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2004 Uni-Buddha Festival'은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불교문화체험 한마당으로 퍼프광장과 응두산 공원 등지에서 펼쳐질 계획이다.(02)732-0239

김은경 기자

불기 2548년 불교성지순례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상품

중국 오대산 불교성지순례

수험생 합격기원 및 소원성취 대법회 봉행

요금 ~~₩1,100,000~~ ▶ **₩599,000** (특별가)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운항-양국 정부 운항허가 조건**

■ 출발일(2004년)

1차: 9월 11일 ~ 9월 14일 (3박4일)
 2차: 9월 14일 ~ 9월 17일 (3박4일)
 3차: 9월 17일 ~ 9월 20일 (3박4일)
 4차: 9월 20일 ~ 9월 23일 (3박4일)

권 특 전

**수험생 학부모에게
문수보살호신불 증명**

주 관 **안진관광** 공동 판매여행사 / 대승항공 730-0202 실크로드 720-9600 헤초여행 733-3900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 * 오대산 중대(자장율사 수행지)
- * 용현목탑-1056년립(중국 최고의 목탑)
- * 운강석굴(중국3대석굴)
- 신청마감: 출발 10일전
- 신청금: ₩100,000
- 입금구좌: 우리은행 052-077295-01-102
예금주 한진관광
- VISA요금: ₩20,000 별도
- 담당자: 한진관광 이기범 과장 TEL. 02-726-5788
한진관광 부산 이숙하 과장 TEL. 051-463-2115
불교방송 최효상 TEL. 02-705-5303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1일	인천 태원 오대산	KE9853 전세기	10:1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정심공양후 오대산 이문(문수보살 도량) 불광사 순례 자력공양후 초불 투숙	조 중 석
			11:30		현식
			19:00		석
제2일	오대산 대동	전용버스	06:30	아침공양후 수상사(법회), 중대(자장율사 수행지, 현종사, 대라정(왕복케이블카) 순례 정심공양후 오대산 출발	조 중
			07:30		석
			13:00	대동 도착후 자력공양 및 호텔 투숙	석
제3일	대동 태원	전용버스	06:30	HOTEL, 온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조
			07:00	아침공양후 운강석굴, 용현목탑 순례 정심공양후	조 중
			09:00	대동 출발 대동 도착후 밤미사지 자력공양 및 호텔 투숙	석
제4일	태원 인천	KE9853 전세기	07:00	HOTEL, 이강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조
			08:00	아침공양후 진사 순례	조 중
			13:00	태원출발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일행하산시요- HOTEL	석